

## 축산물등급판정소와 협약식 체결



우리협회 박승욱 행정총괄국장과 축산물등급판정소 경영지원본부 최승덕 본부장이 협약식을 교환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대한결핵협회는 지난 10월 2일 (화) 축산물등급판정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영혁신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경영혁신 멘토링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라 1차 KORAIL에 이어 2차 전담 멘토링기관으로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선정되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우리 협회는 축산물등급판정소의 경영혁신 사례를 적용하여 우리 협회에 맞는 경영혁신을 이루어나갈 예정이다.

## 스리랑카 보건정책관리자 결핵연구원 견학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스리랑카 보건정책관리자 초청연수 과정' 중 한국의 성공적인 보건으로 발전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결핵연구원이 선정되어, 지난 10월 16일 스리랑카 보건정책관리자 견학을 실시했다. 스리랑카 연수생 11명은 결핵연구원 류우진 원장과 만나 '한국의 결핵관리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연구원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 결핵연구원 한·중·일 학술포럼 개최



우리협회 결핵연구원은 지난달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단지 내 스위트호텔에서 한·중·일 결핵전문가 총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수행하고 있는 결핵연구 성과에 관한 학술적 교류와 한·중·일 3개국 연구원의 인적자원 양성 및 협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0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 간추린 결핵뉴스

한겨레신문은 10월 3일자 기사에서 “노숙자폐 결핵발병률 일반인의 10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복식 통합신당의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노숙자, 외국인노동자, 수용시설의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등 취약 계층이 일반인에 견줘 최대 10배나 폐결핵에 더 많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또한 “장 의원은 ‘정부의 결핵퇴치2030계획을 보면 2008년에 결핵백신 생산의 현대화에 163억원 정도를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약 53억원만 예산에 편성됐다’...”는 기사를 실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우회적으로 보도했다.

사회·경제적으로 풍요로운 2000년대에도 결핵문제는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아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듯 보인다.

일간보사는 10월 17일자 기사에서 일본의 결핵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기사에 따르면 “일본 재단법인인 결핵예방회 결핵연구소는 지난 2005년 일본에서 결핵을 일으킨 약 2만8000명의 환자 가운데 약 100명이 XDR 결핵환자로 추정 된다. XDR 결핵은 다제내성결핵이면서 2차 항결핵제 중 가장 중요한 주사제와 퀴놀론제제에도 내성이 생긴 결핵으로 치료가 아주 어려운 결핵을 말한다.

또한 일간보사는 10월 19일자 “결핵 발생률 OECD 평균 6배 달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결핵의 심각성을 보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박재완 의원이 18일 질병관리본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결핵발행률이 10만명당 96명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16.1명의 6배에 달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는 내용을 전하며 당국의 적극적인 교육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